

# ‘광주의 딸’ 김우정 아쉬운 준우승



27일 전남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 카일필립스코스(파72·645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팬텀 클래식 3라운드 1번 홀에서 김우정이 드라이버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서 열린 KLPGA 팬텀 클래식 1위에 1타 뒤져 공동 2위로 마무리 안송이 최종일 역전 우승... 시즌 2승

광주 출신 김우정(22)이 영암서 열린 KLPGA 투어에서 아깝게 우승을 놓쳤다. 김우정은 27일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 카일 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팬텀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9언더파 207타로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우정은 장하나(28), 장수연(26), 박채운(26), 허다빈(22) 등 4명과 2위 그룹에 포함됐다. 우승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친 안송이가 차지했다. 지난해 11월 ADT 캡스 챔피언십에서 데뷔 10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을 따내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던 안송이는 10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데뷔 이후 237경기에서 첫 우승을 따냈던 안송이는 두 번째 우승까지는 10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 우승 상금은 1억2000만원. 김우정은 최종라운드에서 공동선두를 유지했

나 17번홀(파3)에서 그린을 놓치면서 파를 지키지 못하고 보기로 라운드를 마쳤다. 안도 출신 이소미(21)는 최종라운드에서 선두로 시작했으나 공동 10위에 머물렀다. 공동10위(7언더파 209타)에 오른 최혜진(21)은 이번 시즌에 참가한 10개 대회에서 9번째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상금랭킹 1위 박현경(20)은 공동42위(1언더파 215타)에 그쳤다. 첫날 공동선두(6언더파 66타)에 나서 파란을 예고했던 인기 스타 유현주(26)는 이날 4오버파 76타를 적어내 공동 42위(1언더파 215타)로 내려앉았다. 한편, 김우정은 살레시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때 골프에 입문했다. KPGA투어 정회원인 아버지 김진철(57)씨의 딸 사랑 덕분에 어릴 적부터 탄탄하게 기본기를 갖췄고, 대성여중 3학년때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됐다. 김우정은 170cm·64kg의 균형잡힌 체격에서 뽑어져 나오는 260야드 드라이버가 장점이다. 김우정은 이번 대회 준비과정에서 약점인 숏게임을 보강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정은 금호중앙여고 1학년 때인 2014년 골프 꿈나무 등용문 ‘호심배’에서 이정은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안송이가 27일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 카일필립스코스에서 열린 팬텀 클래식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떨떨 나는 손흥민

EPL 4골 이어 유로파리그 3차 예선서 1골 2도움

축구중가 잉글랜드 무대를 누비는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의 시즌 초반 기세가 매섭다. 손흥민은 지난 25일(한국시간) KF 스킨디야(북마케도니아)와 치른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차 예선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결승 골을 넣고 도움도 두 개나 기록하는 등 팀 득점에 모두 관여해 3-1 승리를 이끌었다. 20일 사우샘프턴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원정 경기(5-2 승)에서 시즌 첫 골을 포함해 무려 4골을 몰아넣어 프로 데뷔 이후 자신의 한 경기 최다 골이자 아시아 선수 EPL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쓴 데 이어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떨떨 날았다. 손흥민은 새 시즌을 맞아 에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0-1 패), 로코모티프 플로브디프(불가리아)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2차 예선(2-1 승)에서는 풀타임을 뛰고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사동이 걸리자 그의 득점포는 무섭게 폭발하고 있다.

최근 2경기에서의 활약으로 손흥민은 이번 시즌 4경기 만에 공격포인트 7개(5골 2도움)를 쌓았다. 특히, 예년보다 빠른 페이스라 눈여겨 볼만하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처음 맞이한 2015-2016시즌에 두 번째 경기인 카라바크(아제르바이잔)와의 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3-1 승)에서 2골을 넣으며 잉글랜드 진출 이후 첫 골맛을 봤다. 그러나 이후로는 시작이 이보다 늦었다. 손흥민의 프로 무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16-2017시즌의 21골이다. 이때 프리미어리그에서 터트린 14골은 손흥민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골 기록이기도 하다. 당시 손흥민은 리그 4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2017-2018시즌 손흥민의 첫 골은 5번째 경기였던 도르트문트(독일)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나왔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호골은 리버풀과 치른 9라운드 경기에 가서야 터졌다. 그러고도 손흥민은 이 시즌에 리그 12골을 포함해 18골을 넣었다.



지난 21일 사우샘프턴전에서 4번째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해보다 일찍 돌아온 손흥민의 득점포는 한 시즌 최다 골 및 공격포인트 기록 경신을 비롯해 역대 최고급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당구 PBA 팀리그 2라운드 MVP에 모랄레스

프로당구 PBA 팀리그 제2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TS·JDX의 로빈슨 모랄레스(사진)가 선정됐다. 모랄레스는 ‘신한금융투자 PBA 팀리그 2020-2021’ 제2라운드 5경기 전 경기에 출전해 7승 1패, 에버리지 2.0으로 전체 선수 중 1위, 득점 성공률 68.5% 등 빼어난 기량을 뽐내며 TS·JDX 히어로즈팀을 2라운드 단독 선두에 올려놨다. 모랄레스는 특히 복식에서 무패 행진을 하며 팀워크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모랄레스의 활약으로 TS·JDX는 2라운드 4승 1무로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같은 팀 이미래도 7승 3패로 개인랭킹 2위를 기록하며 유력한 MVP 후보로 꼽혔으나 선의의 경쟁 끝에 MVP는 모랄레스에게 돌아갔다. 모랄레스는 “MVP가 돼서 행복하고 매우 기쁘지만,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내 성적이 팀에 도움이



됐다 것이다. 내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이 훨씬 중요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팀에 애정을 담은 소감을 밝혔다. PBA 팀리그 2라운드 MVP는 라운드별로 상위 랭킹 1, 2위 팀 중에서 개인 성적 우수 선수들 가운데 경기력 이외에 팀 기여도 등을 평가해 PBA 경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라운드별 MVP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팀리그 제2라운드에 이어 바로 진행되는 ‘PBA-LPBA TS삼푸 챔피언십’은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민체력 무안체력인증센터 목포대 체육관에서 개소

국민체력 100 무안체력인증센터가 목포대학교에 개소했다. 전남도체육회는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국민체력 100 무안체력인증센터(센터장 박희석)가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국민체력100은 개인별 체력 수준을 측정해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 관리 서비스다. 무안군체육회와 목포대학교가 지난 7월 공동으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매년 2억원씩 5년 동안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한다. 체력인증센터에는 건강운동관리사와 체력측정사



가 상주하며 국민들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무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은 체

계적으로 관리해나가기 할 중요한 것이 됐다”며 “무안체력인증센터가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바
2관	테넷
3관	오인회
4관	기괴괴성형수
5관	물란
6관	검객
9관	다바
7관 씨네커플	검객,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8관 씨네커플	아웃포스트, 프란시스 하, 낙엽귀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프롬나드**

2020. 9. 29.(화)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